

유아기 자녀의 영어교육에 대한 어머니들의 경험

Mothers' Experiences on Early Childhood English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용세현, 이성희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Se-Hyun Yong(joyance7@hanmail.net), Sung-Hee Lee(shl@pcu.ac.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유아영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11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영어교육 경험과 인식을 심층 면담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 영어교육 과정에서 어머니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며, 이러한 경험이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지 분석 해 봄으로써 유아영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들의 상황을 보다 깊이 있게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들은 글로벌 시대에 영어는 필수라는 신념, 본인의 경험, 예정된 개인적 상황 등에 의해 자녀의 유아영어교육을 선택하여 실행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학습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때 영어교육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지하였으며 이에 큰 의미부여를 하고 있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영어교육 과정에서 자녀의 공부 스트레스, 높은 비용 부담 등의 어려움과 문제점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유아기 자녀들의 발달에 적절한 영어교육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방향성과 방법론 제시에 관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어머니들의 실제적인 경험 및 바람에 관한 비판적 성찰 등을 드러냄으로써, 유아영어교육의 문제점 및 제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중심어 : 유아영어교육 | 만 5세 | 어머니 경험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deeply the current circumstances of parents who took part in child-English Education through semantic analysis about 11 mothers' and their children's experiences in the individual depth interviews and group interviews. The obtained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thers started their children's English education on the basis of the belief that English ability is an essential asset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eir experiences and the scheduled situation. Also they positively recognized the effect of English education when they could feel their children's learning improvements. Second, participants had experienced their children's education stress and economic burden. Third, participants had personal, social level desires for their children's proper English education. Through this study, it revealed the critical introspection about mothers' experiences and desires in child-English Education. And it alluded to necessity about continuous attention and debate in child-English Education.

■ keyword : Child-English Education | Five-year-old | Mother's Experiences |

I. 서론

교육부는 2017년 12월 유아교육기관 방과 후 특별활동 실행 방안으로서 초등학교 준비와 지식습득의 일환으로 교육되고 있는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놀이와 돌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1]. 하지만 사설학원에서 진행되는 유아대상 영어교육은 제지하지 않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방과후 영어만을 금지시켜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와 선택의 자율성 침해라는 많은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 전면보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2]. 교육부는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하루 1시간 이내의 노래, 게임, 음악, 율동 중심의 ‘놀이형 영어 활동’을 허용한다는 방침으로 선회 하였다[3]. 이렇게 ‘유아영어교육’은 90년대 후반 조기 영어교육 열풍 이후 다시 한 번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자녀의 교육에 많은 결정권을 가진 학부모들의 영향력이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보여주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기치로 1997년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이 실시된 이래 불과 수년 만에 많은 유아 교육 관련 기관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4].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89.6%의 유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영어교육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정규 유아교육 과정에는 영어교육이 포함되지 않지만, 많은 유아 교육기관에서 특별 활동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5][6]. 이렇듯, 유아영어교육은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 확산 및 지속되어 오고 있다.

학부모들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한 선행 연구결과들에서는 유아영어교육은 유아의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을 습득하는 등의 장점을 지니지만, 그 효과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인식을 보고하고 있다[7-9]. 학부모들의 일반적 특성과 유아영어교육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들에 의하면, 취업한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들보다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10],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11], 혹은 딸이 부모일수록[12]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으며, 유아기 자녀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유아영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하기 위해’[13], ‘어릴 때부터 영어에 관심을 갖고 친숙하게 하기 위해’[14]서 라고 하였다.

유아의 영어교육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연구[15]에서, 유아영어교육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92.7%였으며, 그 이유로는 ‘조기 외국어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70.7%), ‘국제화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24.0%)이라고 하였다. 즉, 세계화 시대에 미래를 대비하여 영어를 필수로 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었다[16][17].

반대로 다른 연구들에서는, 유아 부모의 75%가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었지만 교육 효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18], 어머니들이 유아영어교육의 효과로 영어에 대한 자녀의 흥미와 동기 유발(47.2%)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적절한 유아영어교육 실시 연령에 대해서는 만 3세-5세(50.6%)를 가장 적절하다고 여겼고, 유아영어교육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모국어 습득에 혼란을 주는 것(39.1%)을 가장 많이 염려했다[16]. 또한 영어학원 선택 결정 요인에 대한 학부모와 학원장의 인식 연구[19]에서는 부모들은 자녀의 차별화된 성장에 대한 갈망으로 영어학원을 선택한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유아기 영어교육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 연구 및 견해들도 다수 있다. 유아와 비교하여 성인이 보다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아기의 과도한 영어학습 시간 투자는 비효율적이며[20], 만 6세 이전의 과도한 영어교육은 유아의 뇌 발달에 적합하지 않아서 스트레스 증후군, 학습기억, 신경세포회로 등에 장애를 미칠 수 있는 우려도 높다[21].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 습득하는 EFL 환경에서는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는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22].

그 간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설문 조사 및 통계 처리를 통한 정량적 분석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23-25]. 또한 유

아영어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경험과 인식을 질적 연구로 다룬 연구[26]에서는 주로 분석의 대상을 유치원 영어교육만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관련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학부모들의 다양한 경험을 드러내주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유아영어교육은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 사교육 중심으로 확산되어 왔으며[27], 이로 인해 유아 영어 교육의 학문적 기반도 취약한 상태이다. 이러한 유아기 영어 교육의 현황과 유아기 영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상반된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유아들의 발달과 요구에 적합한 영어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축적과 논의의 필요성은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와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유아의 교육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어머니들의 경험을 심층 면담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유아영어교육 경험을 가까이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과정은 질적 연구의 순환적 절차를 따름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기 자녀의 영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의식과 요구를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만 5세 유아를 둔 어머니들의 유아영어교육에 관한 경험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자는 영어교육을 전공한 후 자녀를 양육하며 유아교육을 전공하였다. 이러한 전공을 바탕으로 현재 B놀이학원에서 유아들의 영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유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놀이로서의 영어와 실생활에 활용가능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써의 영어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연구자와 같은 입장의 학부모들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들의 경험에서 자녀의 유아기 영어교육에 대한 의미를 찾고 싶었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가 2년 이상 유치원

이나 어린이집 대신 영어 학원을 다니거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주 2회 이상 영어프로그램을 따로 수강한 경험이 있는 만 5세 자녀를 둔 11명의 어머니들이다. 연구 참여자의 자녀들은 모두 첫째 또는 외동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서 모든 것이 고민과 도전의 연속이었다.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과연 올바른 방법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유치원을 다니며 영어학원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자녀의 영어실력 향상에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자녀를 영어학원 유치부에 등록하였다. 반대로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영어학원 유치부에서 학습적인 부분을 강요하는 것이 자녀를 힘들게 한다는 생각으로 일반 유치원으로 옮겼다. 또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유치원을 선택 할 때 영어수업이 매일 진행되는 곳을 선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배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배경

	나이	직업	재원 기관	자녀영어 교육기간
A	42	약사	K영어학원 유치부	3년10개월
B	38	중등교사	C유치원	2년10개월
C	38	가정주부	S유치원	2년10개월
D	36	개인사업	L영어학원 유치부	4년10개월
E	41	초등교사	B유치원	약 2년
F	39	가정주부	J유치원	2년8개월
G	41	가정주부	S유치원	3년10개월
H	38	초등교사	D유치원	3년10개월
I	36	프리랜서	S유치원	3년10개월
J	39	가정주부	J유치원	2년10개월
K	38	가정주부	S유치원	3년10개월

2. 연구절차

연구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그 경험에서 만들어지는 의미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인 면담법[28]을 연구방법으로 선택하였다. 본 면담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약 18주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 1인마다 개별 면담을 1~2회, 회당 60~90분 간 실시하였다. 집단 면담은 총 6그룹에 대해 1그룹 당 1회씩, 회당 120분, 총 6회 실시하였다. 집단 면담을 통해 2~3인의 소그룹 구성원들이 서로의 경험과 인

식, 정보, 의견, 문제의식 등을 교환하면서 상호 토론, 질의, 응답을 거쳐 고민하던 당면 문제를 일부 해결하거나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통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 FGI. 혹은 표적 집단 면접법)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얻기도 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 및 분석 작업은 녹취, 전사 및 통합, 내용 분석, 개념화·범주화, 주제별 내용 분류, 주제별 내용 해석[29]등 여러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 방법 및 생성된 자료의 목록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자료 수집 방법 및 생성된 자료의 목록

자료수집유형	사용된 방법과 자료	수집된 자료	분량
개별면담	연구 참여자의 집, 카페, 동네 놀이터 등 연구 참여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와 전화통화로 1인당 1~2회 실시. 비구조적, 반구조적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 내용을 녹취·전사함.	녹음자료, 전사본	A4 62장
집단면담	11명의 연구 참여자들 중 시간이 허락되는 6명의 어머니와 연구자가 함께 자녀의 유아영어교육 경험을 이야기하였으며, 면담 내용을 녹취·전사함.	녹음자료, 전사본	A4 21장
연구자 연구노트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 도중 또는 면담 후 필요한 내용들을 기록 함.	연구저널	A4 7장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영어교육의 선택 그리고 효과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가 영어를 모국어와 같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택하였으며, 체감되는 학습효과 측면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1.1 영어교육 선택의 동기

연구 참여자들은 영어는 선택적 외국어가 아닌, ‘글로벌 의사소통의 필수 도구’이자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유아기 영어교육이 필요하되, 그 시기는 5~7세가 적절하며, 이

러한 교육을 통해 유아의 영어에 대한 흥미와 성취동기를 유발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영어에 노출된 시간이 많을수록 영어를 편하게 받아들이는 듯싶어요. 한국에 살면서도 영어를 모국어처럼 대하게 되는 것이요.

(연구 참여자 A, 1차 개별면담, 2017. 5. 20)

가장 큰 이유는 노출이죠. 한국말처럼 영어를 쉽게 받아들이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연구 참여자 H, 1차 개별면담, 2017. 5. 09)

어머니들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영어교육 방법을 원한다고 분석한 연구결과[24]와 같이,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고려한 교육공간의 여건 및 교수 방법을 고려하고 있었다.

아이가 하루 종일 머물 공간이니까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인 곳을 선택했어요.

(연구 참여자 B, 집단면담, 2017. 8. 09)

유아기 때는 노래랑 챗트 같은 걸로 아이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영어교육이 맞다고 생각해서요.

(연구 참여자 G, 1차 개별면담, 2017. 7. 03)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학창시절 본인의 경험과 현재 상황에 비추어 자녀의 영어교육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학교 다닐 때 영어가 너무 어려운 과목이어서 내 아이만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해서 빨리 시작했죠.

(연구 참여자 E, 1차 개별면담, 2017. 6. 09)

대충 알아듣기는 해도 내가 발음이 형편없어서 오히려 아이 영어에 더 방해가 될까봐....

(연구 참여자 F, 1차 개별면담, 2017. 7. 20)

예정된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서 자녀의 유아기 영어 교육을 선택한 어머니들도 있었다.

3학년 때 아이 아빠가 미국 파견근무를 가야해서 공립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따라가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하니깐 매일 2시간씩 학원 보내는 거죠.

(연구 참여자 J, 1차 개별면담, 2017. 6. 22)

초등학교 입학 후에 여름방학 때 캐나다 어학연수를 갈 예정이고, 아이가 잘 적응한다면 그곳에서 학업을 이어 나갈 거예요.

(연구 참여자 K, 1차 개별면담, 2017. 8. 25)

1.2 체감되는 학습효과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 영어교육에 대해 주로 심리적, 정서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시작하였고 실제 학습 성취에 대해서는 애초에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아이들이 보여주는 학습의 결과로 인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였다.

청진기가 영어로 'stethoscope'라고 알려주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어려운 단어라서 깜짝 놀랐어요.

(연구 참여자 B, 1차 개별면담, 2017. 6. 09)

원어민 말을 알아듣고 간단한 대답도 해요. 유아기 때 영어를 편하게 접하면서 원어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만으로도 큰 성과 인 듯해요.

(연구 참여자 H, 1차 개별면담, 2017. 5. 09)

영어단어를 습득하는 방식이 영어를 한국어로 변환한 다음 다시 영어로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영어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단어를 습득한다고 하시던데요.

(연구 참여자 D, 1차 개별면담, 2017. 5. 24)

이는 유아영어교육이 유아의 영어 능력과 한국어 능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한 연구[30]를 지지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영어교육 과정에서 자녀의 직접적인 실력 향상 효과를 보다 뚜렷하게 인지하고 기억하

면서 상대적으로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있었다.

2. 어머니들이 느끼는 영어교육의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유아영어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경험했다. 학습 거부, 학업 어려움 등으로 인한 실망감, 회의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2.1 영어는 스트레스

영어로 인한 스트레스는 영어 수업을 시작한 초기보다는 3~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반복된 수업으로 인한 유아의 흥미 저하와 실증, 교재 교체 등 수업 환경의 변화 등이었다. 유아가 겪는 어려움은 어머니들에게 양육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수업시간에 영어만 허용 되어서 스트레스 받고 숙제가 너무 하기 싫다고 그랬어요. 눈을 계속 깜박거리고..

(연구 참여자 D, 2차 개별면담, 2017. 8. 11)

교재가 바뀌면서 수준이 높아지니까, 공부라는 느낌을 받았는지 싫어 하더라고요. 책을 숨기기도 하고..

(연구 참여자 F, 2차 개별면담, 2017. 8. 10)

연구 참여자들은 유아영어교육 과정을 통해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인식하였다. '영어유치원 10곳 생기면 소아정신과 1곳 생긴다'는 기사의 제목처럼 유아영어교육이 단순한 교육적 문제가 아닌 사회 정서발달의 문제까지 연계되어 감[31]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가 어머니의 뜻대로 따라오지 않아 좌절감을 느낄 때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 분석한 연구[16]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양육 스트레스를 해결·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원을 옮기거나, 자녀와의 대화와 관심, 함께 공부하기 등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소수 정예로 운영되는 학원을 찾았어요 아이에게 조금 더 집중해주니까 편하게 느끼는..

(연구 참여자 B, 집단면담, 2017. 8. 09)

많이 다독여줬어요 “엄마랑 같이 해보자.” 선생님한테도 적용할 때 까지 한국어 사용을 허용해달라고 했어요

(연구 참여자 D, 2차 개별면담, 2017. 8. 11)

아이의 영어단어 시험 준비를 도와주다가 너무 화가 나서 큰소리로 혼내고 난 후 미안해서 평평 울었다는 학부모님과 상담이 생각났다.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스트레스인 영어를 지속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길래..

(연구자지널, 2017. 8. 12)

2.2 주변의 압박: 흔들리는 엄마

또 다른 어려움은 먼저 아이를 키운 학부모들의 조언과 자신의 신념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부모의 신념이 흔들리며 자녀에게 일관성 있는 영어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강요만을 했던 경험이다.

여기 엄마들은 본인이 외국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이 많아서 영어는 기본이라는 생각이 강해요 당연히 해야 하는거라서 영어유치부 보내라고..

(연구 참여자 D, 2차 개별면담, 2017. 8. 11)

주변 아이들이 조금씩 영어를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영어 할 필요 없다고 안 시키다가 아이한테 이거 해야 한다 저것도 해야 한다..

(연구 참여자 G, 2차 개별면담, 2017. 8. 18)

아이들 키워보니까 무조건 선행학습이 정답이라고 안 시킨거 후회한다고.. 나도 내키지는 않지만..

(연구 참여자 K, 집단면담, 2017. 8. 29)

2.3 높은 비용에 대한 부담감

학업과 관련된 어려움, 스트레스에 못지않게 어머니 들을 고민하게 만든 것은 높은 비용 이었다. 다른 영역의 교육비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영어 교육비에 대한

부담감, 왜곡된 시장 구조에 의해 불필요하게 높게 책정된 비용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 달에 거의 100만원씩 학원비를 내면서 학원 숙제 보내주는 과외비는 20만원 이예요 가끔은 ‘이만큼의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하죠

(연구 참여자 A, 2차 개별면담, 2017. 7. 15)

계속 쪽 이어져야 하니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꾸준히 ‘이렇게라도 하니깐 지금 이만큼이라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못 놓을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J, 집단면담, 2017. 8. 23)

영어학원 유치부에 근무하는 원어민들의 자질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다. 단지 영어를 말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방법일까..

(연구자지널, 2017. 7. 15)

높은 비용에 비해 교육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인식하였다. 긍정적인 교육 효과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효과는 투입된 비용에 비해 결코 높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현행 유아영어교육은 고비용, 저효율이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이를 쉽사리 해결할 수 없다는 점과 계속되는 후속 투자에 대한 부담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였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도, 아니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영어 사교육을 이어가야만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을 무효화하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만 같은 강박 관념, 그로 인한 현실적인 부담감과 두려움 등을 토로하였다.

계속 해 줘야지 할 것 같아요 그동안 투자한 것도 있고 욕심 날 것 같아요 누군가는 꾸준히 할 텐데.. 그 아이랑 내 아이가 경쟁하게 될 텐데..

(연구 참여자 I, 1차 개별면담, 2017. 6. 20)

지금처럼 계속 투자해야하는데 대학갈 때 까지 가능할까 싶어요 언어나서 꾸준히 해줘야할텐데..

(연구 참여자 F, 집단면담, 2017. 8. 23)

아무것도 안하면 아마 유치원에서 배웠던 거 다 잊어버릴 텐데.. 3학년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영어를 놓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연구 참여자 C, 1차 개별면담, 2017. 7. 18)

적지 않은 비용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유아영어 교육에 대한 현재의 투자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필수적, 본질적인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회의감을 겪고 있었다. 고비용, 저효율에도 불구하고 타인과의 경쟁, 사회적 압박,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의 필요성 등에 의해 영어교육에 대한 투자를 멈출 수 없으며, 오히려 공교육 영어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3학년 전까지는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었다.

3. 다짐과 바람

3.1 다짐

사교육 영역에 있는 유아영어교육은 전적으로 학부모들의 선택이자 책임이다. 어머니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가치 기준을 설정하고 최선의 선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무리하면서 억지로 영어학원을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연구 참여자 E, 집단면담, 2017. 6. 9)

꼭 영어를 잘해야만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어가 필수인건 맞지만 그 기준은 누가 정한건지.. 영어에 너무 엄매이고 싶지 않아서..

(연구 참여자 I, 집단면담, 2017. 8. 29)

자녀의 영어교육을 기관에만 의지하지 않고 함께 응원하며 도움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책임감 있는 부모의 모습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영어를 하나의 놀이로 여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엄마표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엿볼 수 있었다.

교육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엄마가 같이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잠수네영어 책도 읽고..

(연구 참여자 E, 집단면담, 2017. 8. 9)

무조건 선생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같이 배워가면서 아이와 함께 해야..

(연구 참여자 F, 집단면담, 2017. 8. 23)

어머니는 자녀 교육의 1차적 책임자이자 '중요한 관리자'이며, 어머니의 교육 참여는 유아기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32].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의 입장과 적성,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하면서 자녀의 교육에서 무엇이 우선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균형 있는 시각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3.2 바람과 기대

연구 참여자들은 유아영어교육과 초등학교 이후의 공적 영어교육 과정이 상호 긴밀하게 효율적으로 연계·연동될 필요성 제기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자녀를 위한 발달에 적절한 개인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과 모색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적, 공공적 차원의 영어교육 발전 방향과 방법론도 함께 성찰하며 정책적 방안 등을 제시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다.

유치원 누리과정이란 연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실용적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구 참여자 J, 2차 개별면담, 2017. 8. 21)

정책적으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 C, 1차 개별면담, 2017. 7. 18)

유아기 영어도 아이들의 발달수준에 맞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 F, 2차 개별면담, 2017. 8. 10)

자녀를 키우고 있는 모든 어머니가 그러하듯 연구 참여자들도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사회에 대한 생각을 막연하게나마 가지고 있었다. 미래의 유아영어교육은 전체 유아교육과정의 맥락 안에서 분석, 계획, 실시될 수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26]. 앞으로의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방향성과 영어교육에 있어서 지금의 자녀들이 성

인이 되었을 때, ‘영어’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분야를 막론하고 영어는 필수일 듯.
(연구 참여자 A, 2차 개별면담, 2017. 7. 15)*

*지금도 통번역기 기술 너무 좋은데, 앞으로는 더 발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이 영어를 할 수 있는 것과 번역기를 다루는 것은 분명 다를거라고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 G, 2차 개별면담, 2017. 8. 18)*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만 5세 어머니들의 유아영어교육 경험의 의미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가 영어를 모국어와 같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어교육을 선택하였다. 이는 유아영어교육에 찬성하는 어머니의 비율이 92.7%라고 밝힌 연구 결과[15]를 지지한다. 그리고 선택 시 영어교육에서 자녀의 정서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었다. 즉, 어렵고 딱딱한 텍스트 위주의 학습이 아니라, 놀이나 활동 중심의 자연스러운 영어를 어린 나이부터 즐겁게 체험하는 방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결과[33]와 일치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유아들의 어휘력 및 구사력 등 영어학습 효과를 체험하는 경우 이를 의미 있게 지각하였다. 이는 유아영어교육 효과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 중 영어 발음이 좋아지는 효과를 가장 높게 인식했다는 연구 결과[34]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2년 이상 장기간의 자녀 영어교육 과정을 통해 유아영어교육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다수의 참여자들이 자녀의 영어 스트레스, 학업 거부, 학습 부진 등으로 인한 실망감과 회의감 및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선행 학습을 강조하는 사실 학원의 영어교육 방식이 유아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연구 결과[35]와 같은 결과이다. 이는 유아영어교육의 목적이 유아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아래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유아 발달 및 학습의 원리와 유아 언어교육의 목표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전문가들의[36] 견해에 비추어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현재의 유아영어교육의 과도한 교육비, 이중 지출, 고비용이면서 저효율인 가성비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비용의 영어교육에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유아영어교육이 심리적 자신감 및 원어민과 흡사한 발음 습득 등의 장점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7]를 지지한다. 몇몇 연구 참여자는 비용 부담과 그로 인한 비판 의식에 의해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지도하는 ‘엄마표 영어’를 실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각종 문제점과 갈등으로 인해 자녀를 직접 가르치기를 원하고 시도하는 어머니들이 적지 않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8]를 지지한다. 일부 참여자들은 이러한 고질적인 비용 문제 외에도, 유아기 영어교육이 공교육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점[37], 영어를 배워도 활용할 기회가 거의 없는 문제점[38] 등을 함께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은 유아영어교육의 명백한 문제점과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 유아영어교육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지속하지 않을 수 없는 점, 그 과정에서 본인만의 확고한 교육관을 확립하기 어려운 점 등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자신의 영어교육 방법론과 가치관 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태도와 문제의식은 유아영어에 대한 부모인식을 다룬 연구 결과[17][39]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유아영어교육의 목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과 주관적 신념을 나타내 보였는데, 다수의 참여자들은 단기간의 학업 성취보다는 중장기

적으로 자녀들에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 당당함, 심리적·정서적 편안함 등을 심어주고, 그로 인해 영어를 어렵고 딱딱한 ‘교과목’이 아닌, 일상생활의 일부이자 놀이로 접목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와 통해, 11명의 연구 참여 어머니들의 다양한 경험과 인식 내용을 실증하고, 유아영어교육의 긍정적 효과로 느끼는 부분, 어려움과 문제점, 영어교육의 목표와 지향점,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발전 방향성에 관한 요구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보다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유아영어교육 정책을 마련하거나 시스템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기초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D광역시와 S특별시에 거주하는 유아 자녀들을 둔 11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표본 집단에 대한 심층 면접 및 질적 분석 연구이다. 이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향후에는 더욱 심층적, 전문적인 면담 내용을 구성하고 큰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후속 보완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유아영어교육의 당위성, 타당성, 적절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장 관찰 연구도 함께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열정이 현재 우리 사회의 유아영어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작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교육 철학적, 교육 이론적 분석이나 성찰은 부족한 실정이다[40]. 유아들을 위한 바람직한 교육을 전제한 유아기 영어 교육과 관련된 학부모의 교육신념 및 철학을 분석하고 성찰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2018 배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자료의 일부를 사용하였음.

참 고 문 헌

- [1] 교육부,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교육부 보도자료, 2017.12.27.
- [2]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08802>
- [3] http://www.hani.co.kr/arti/society_general/864393.html
- [4] 손중선, 이병천, 김희규, “유치원 영어교육 현황 분석 : 초등영어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Primary English Education*, 제14권, 제2호, pp.185-204, 2008.
- [5] 강승지, 이연선, “우리나라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연구: 빅데이터와 사회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25권, 제2호, pp.141-168, 2018.
- [6] 이기숙, 손수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유아의 일상생활 비교,” *유아교육연구*, 제32권, 제2호, pp.49-71, 2012.
- [7] 목현정, *유아조기영어교육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관한 초등학부모의 인식*,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8] 박신영, *울산 지역의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현황과 학부모들의 인식 분석*,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9] 신진영, *조기 영어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지도 방안 연구 : 외국의 조기교육,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10] 김은희, *취학 전 아동의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실태에 관한 연구*,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11] 이정아,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조기교육에 대한 인식연구 - 부모의 계층에 따른 교육열의 차이를 중심으로 -,” *사고개발*, 제11권, 제1호, pp.131-153, 2015.
- [12] 이윤진, “유아기 영어교육실태 분석,” *육아정책포럼*, 제25권, 제7호, pp.15-25, 2011.
- [13] 윤세영,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 인식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14] 이윤진, *유아기 영어교육실태 분석*, 육아정책포럼, 육아정책연구소, 제25호, pp.15-25, 2011.
- [15] 이숙자, *가정에서 유아의 영어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16] 김경순,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및 양육스트레스 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17] 김혜미,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영어교육 방법,” *영미어문학*, 제126호, pp.171-193, 2017.
- [18] 노승희,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19] 박상옥, “유아대상 영어학원 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학부모와 학원장 인식의 질적 연구-근거이론 중심으로,” *미래교육연구*, 제7권, 제1호, pp.59-88, 2017.
- [20] 전주아,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와 유아 영어교사의 인식 연구*,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21] 우남희, 서유현, 강영은, *영유아에 대한 조기 영어교육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2.
- [22] 이병민, *조기 영어교육, 거품 빼고 진실 캐기 곳 바이 영어 사교육*, 서울 : 시사인 북, 2014.
- [23] 김용환,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실태 연구 : 양산지역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24] 오수아,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 및 요구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25] 황근희, 최나야,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이 일반유아 교육기관 또는 영어몰입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의 영어 학습 태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제21권, 제1호, pp.189-211, 2017.
- [26] 이석금, 이진희,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현대문법연구*, 제84권, pp.115-140, 2015.
- [27] 마송희, “유아영어교육연구동향: 2006-2016년 국내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연구문제연구*, 제34권, 제4호, pp.125-149, 2016.
- [28] I. Seidman,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교육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을 위한 안내서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박혜준, 이승연 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06년 출판), 2009.
- [29] 이용숙, 김영천,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방법과 적용*, 서울 : 교육과학사, 1998.
- [30] 황혜신, “조기영어교육이 유아의 이중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지*, 제13권, 제4호, pp.497-506, 2004.
- [31] 심우진, 신동일, “영어교육 열풍에 관한 시사다큐멘터리의 서사분석: <PD수첩> ‘조기 영어교육 열풍, 신음하는 아이들’ 방송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7호, pp.79-92, 2017.
- [32] J. P. Comer and N. M. Haynes, “Parent involvement in schools: An ecological approach,”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Vol.91, No.3, pp.271-277, 1991.
- [33] 강시경, 원은석, “유아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의 구성과정 및 효과제시,” *외국학연구*, 제16권, pp.9-33, 2011.
- [34] 김마리아, *영어학습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기대와 유아 학습태도 및 흥미*,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35] 이용석, *유아 사교육 참여 형태가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36] 양옥승, 김진영, 김현희, 김영실, “한국 사립 유치원 영어교육의 실태,” *아동학회지*, 제22권, 제2호, pp.299-313, 2001.
- [37] 송미선, 박현주, 김정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의 조기영어교육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어
린이미디어연구, 제10권, 제3호, pp.115-134, 2011.

[38] 김미나,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 원장, 교사
의 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07.

[39] 이영순, 만 3-5세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부모 인
식 및 유아의 정의적 특성, 아주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14.

[40] 광혜린, 조기영어교육의 실태 및 교사와 학부모
의 인식, 성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저 자 소 개

용 세 현(Se-Hyun Yong)

정회원



- 2001년 3월 : 공주대학교 영어영
문학과
- 2005년 3월 : 공주대학교 교육대
학원 영어교육전공
- 2011년 3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교 유아교육학과

▪ 2015년 3월 : 배재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관심분야> : 유아영어교육

이 성 희(Sung-Hee Lee)

정회원



- 1989년 2월 : 배재대학교 유아교
육과(문학사)
- 1991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유아교육 전공(문학석사)
- 1994년 8월 : Pennsylvania
State Univ. (Ph.D)

▪ 1999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유아교육 교수학습 방법